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각 가정마다 풍성한 결실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 오늘은 총회(교단) 주일입니다. 총회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린이학교 테마여행은 13일(화)-15일(목)로,  
멋쟁이학교 지리산 종주는 13일(화)-16일(목)로 연기하였습니다.
- 10월 첫째 주일(세계성찬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동세례(7-12세)와 성인세례(13세 이상) 입교(13세 이상)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준비교육 일정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31차 정기회의가 오후 2시 30분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생일) · 전경희 집사 가정

강단을 꽃으로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 결혼기념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36 호

2022년 9월 4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국내선교지 탐방

여주 새터마을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제 귀한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공동체 터 정리로 어수선한데다, 2박 3일간의 공동체 나들이 직후 맞는 손님맛이가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사랑방공동체 선교위원회'라는 딱딱한 이름보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 사람들이나 식구들의 방문처럼 여겨져서, 그리 죄송스럽지 않은 편한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저런 대화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참 따뜻하고 즐겁고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방문 편에 여러분들의 '물질의 나눔'을 잘 전해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지 못하여 늘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공동체 온 지체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전해주신 사랑에 저희 식구들 모두가 뭉클하였습니다.

공동체와 공동체 각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입장에서, 옛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듯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고후8:3) 모아주셨다는 생각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써야 값어치가 제대로 새겨질까 궁리하며 '새터'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요긴하게 선용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정태일 목사님 내외분과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식구'의 마음과 격려를 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사랑방공동체 식구 모든 분들이 신비로운 '땅 위의 하늘 나라' 삶이 더욱 깊어지고 맑아져 가시기를, 늘 동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0일 권혁신 목사님께서 게시판에 남겨주신 글을 발췌했습니다.

저는 사랑방에 오신 목사님들을 뵈는 적은 있었지만 직접 찾아가 목회 현장을 가본적은 없었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지만 그 모습이 눈에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 각 교회의 목사님들을 뵈고 현상이 어떤지를 보고 나니 이제 더욱 깊이 와 닿게 되었습니다. 역시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방문하고 또 대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역시 현장을

꼭 한번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먼저는 의탄교회의 최경희 목사님과 용계리 교회의 박인옥 목사님을 만나 뵈고 그간 여러 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 싱글 목회자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지만 덕을 세우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마을에 녹아들어 삶을 함께 하실 지에 대해 고민하시고 또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나누시고, 밥도 나누시고, 좋은 것 생기면 먼저 필요한 사람을 살펴 채우시며 마을 아이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며 사랑을 우직이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이 통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좋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며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마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싹 말라 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논바닥 같은 곳에 복음으로 물주고 씨 뿌려 생명력을 틔우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새터마을 교회 권혁신 목사님께서서는 최근 있었던 어려웠던 일들을 "허허"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지내던 집을 모두 직접 해체하시면서 위험한 일도 있으셨지만 오히려 어떻게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역울한 일도 있고, 과도하게 "다오!다오!"하는 사람들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하지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차후 함께 나눌 시간이 있다면 더 자세히 나누도록 약속드리며 각 목사님들의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여주 새터마을 / 권혁신 목사님

- 하나님의 일하심에 잘 반응하고 감당토록

- 새터민 교회가 잘 준비 될 수 있도록

의탄 교회 / 최경희 목사님

- 예배당 수리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되도록

- 가슴, 허리 온전히 회복하여 사역 잘 감당하도록

용계리 교회 / 박인옥 목사님

- 교인이 20명, 사택을 지을 수 있도록

- 백내장으로 인해 사역 방해받지 않도록

- 후임 목회자와 은퇴준비 잘 되도록 /

##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가 되고,  
어떤 것은 육십 배가 되고,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었다. ”  
< 마태복음서 13장 8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마가복음 16장

제목 :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546 458 435 515

###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8절 <여자들이 매우 놀랐다.>

9~14절 <제자들이 여자의 말을 믿지 않다>

15~20절 <복음을 전할 때 징표가 따르다.>

### 2. 내용의 의미(Why)

예수님께서 제일 약한 여자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자나 강한자나 상관없이 은혜를 갈구하고 준비된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몹시 슬퍼하던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한 말을 믿지 못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징을 약속하신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 3. 의미의 적용(How)

- ① 신앙생활에서 선입견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하자.
- ② 신앙생활에서 감정에 휩싸여서 진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 ③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성서일기

## 황금휴가 10일

벌써 9월이 되었네요. 한 달 전인 8월은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 위한 공식 휴가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달에 저도 열흘이나 계획하지 않은 혼자만의 '황금휴가'를 보냈습니다.

주어진 휴가기간 동안 열흘짜리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를 돌아볼 시간이 주어졌고 폭 쉴 시간을 가져서 지금 생각해보도 꿈의 세계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치다보니 전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피아노와 보냈고 어른이 되면서는 가르치는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며 현재는 학원을 운영하다보니 쉽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한번 못가고 교회의 성지순례조차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일에 치여 살았었는데 갈수록 일은 많아지고 체력은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리다 쓰러지겠다 생각하셨는지 강제로 10일간의 '황금휴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3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원들이 문을 닫았는데 그 어려운 시기도 잘 넘겼고 개인적으로도 잘 버텼는데... 이번 8월에 코로나 증상인 기침, 열, 몸살기운도 없이 오직 장염증세가 나타나면서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나에게도 코로나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혼자 방에서의 재택격리기간이 주어졌고 이틀정도 지나니 약의 효과로 장은 회복됐는데 약 때문에 위가 약해져 온갖 영양죽을 먹어가며 힘없이 누워있다 잠자고를 반복하며 아무생각없이 일상의 복잡했던 머릿속을 완전히 비우고 폭 쉴 시간을 보내다보니 이런 행복한 황금휴가는 없었습니다.

격리기간은 끝났지만 3일 더 쉬니 출근하고 싶은 생각이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충전되었습니다. 하나님 ! 인간은 미련해서 쓰러지기 전에 일을 놓지 못하지만 다시는 병으로 휴가하는 일은 안 되게 미리미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젠 쉬엄쉬엄해야지 결심했지만 이 시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 일에 치여 있네요. ㅠ

여러분들도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세요.

하나님.. 황금휴가 주셔서 넘 행복했고 잘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체들의 삶

에베공동체 김영희 권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충환 최연우 / 봉헌위원 : 전선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시 편 84 : 1-4    인도자  
26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342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마태복음서 13 : 3-9    설교자  
433                    사랑방  
“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십시오 ” 정재훈 목사

                          설교자  
459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공동기도문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이 되어 온갖 나무에 과실이 열리듯이  
저희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아멘.

##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십시오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씨에 비유하셨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기는 하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고, 돌짜밭에 뿌려지는 씨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 당하면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며,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재물과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의 비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나, 비유에서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성도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단단히 붙어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버티다 보면, 줄기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이레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월요일에 딸기밭 김을 매려다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빨갭게 익은 방울토마토만 따서 들어왔습니다. 요리선생님들께 부탁드려서 점심 샐러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원래도 잘 먹던 샐러드를 더 잘 먹었습니다.

꾸러기들은 자유롭게 이것저것 잘 만듭니다. 꾸러기들이 만들고 싶다고 하면 교사들이 함께 재료도 찾아보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성하기 힘들어하는 꾸러기도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밑그림과 방법이 있는 만들기 활동지를 꺼내놓아 보았습니다.

비가 오던 화요일 오후 ㅈㅈ이가 개구리 접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합니다. 한 명씩 모여들더니 모두들 개구리를 접습니다. ㅇㅇ이와 ㄱㄹ이가 함께 색종이를 오려 연잎과 연못을 만들어 꾸밈니다. ㅇㅇ이는 개구리 농장을 만들겠다고 더 접습니다. ㅈㅈ이가 자기 개구리도 그 농장에 함께 살아도 될까 물으니 놀러 오는 건 되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결국 ㅈㅈ이는 개구리가 놀 수 있는 미끄럼을 만들어 자기 개구리가 살 연못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ㅇㅇ이는 연못을 만들다가 미끄럼과 계단을 접어 붙입니다.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먼저 끝낸 친구가 꺼내오더니만 모두들 활동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해야만 하는 때까지 그렇게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짹짹 지르고 어지간한 건 다 참아주던 꾸러기들이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니 정리하자고 하면 더 놀아야 한다고 투덜투덜. 친구가 가져간 활동지를 보고 저거 내가 먼저 하려고 한건데 투덜투덜. 그럴 때 8월에 외운 말씀이 뭐였나 물으면 얼굴을 싹 바꾸고 웃어 보입니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18절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하늘은 높고 바람도 살랑거리는 아름다운 계절 한 주간 아이들의 마음이 온통 자연을 향해 있는 듯합니다. 뒷마당에선 강아지가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맛난 간식도 주고 쓰다듬어주는 아이, 트램펄린과 그네에서 바람을 느끼고 배움과 가르침

끼는 아이, 신나게 축구를 하는 아이, 텐트에 앉아 책을 읽는 아이... 여러 장소에서 아이들은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기 코로나로 운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학기부터 다시 줄넘기를 시작 했습니다. 줄을 키에 맞추고, 발에 맞는 신발도 구입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신나게 했습니다.

이번 학기 테마는 목공, 미술놀이, 방구석미술, 종이야 놀자인데 선생님 과 함께 종이를 자르고 붙이며 열심이었고, 기계설명 얘기를 들었는데 한 학기동안 재미나게 즐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첫 '매우 강' 태풍 힌남노 뉴스를 대합니다. 교사회의도 하고 부산 기상청과도 통화했으나 기존 일정대로 여행을 갈 경우 외부활동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획했던 테마여행을 9/13(화)~ 15(목)로 연기하였습니다.

태풍이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길 또 여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내며 이 가을을 느끼는 한주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교사 : 이현숙 >

### 멋쟁이학교

2학기 첫걸음을 잘 내디뎠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일교차가 커져 멋쟁이들의 옷차림도 바뀌었습니다.

수요일에는 6학년 9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6학년이지만 학교생활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9월 모의고사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도하며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

2학기 첫 번째 공동 심화 주제는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첫 수업에서는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열린 수업 시간에는 지리산 여행 준비로 코펠과 버너를 닦고 곰팡이가 생긴 텐트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멋쟁이 총회에서는 2학기 고온유 멋쟁이가 회장, 박세은 멋쟁이가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회장단과 함께 할 2학기의 멋쟁이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는 지리산 여행 주간이지만 태풍이 예상되어 일정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사랑방공동체 학교들과 교회 식구들 모두 태풍에 큰 피해 없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 교사 : 박예나 >

## 힌남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요 며칠 저의 핸드폰 검색어 순위 1위는 바로 '힌남노'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 이름을 불렀으면 힌남노가 마치 살아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힌남노의 위력과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두 번 태풍을 만나건 아니지만, 이번 힌남노가 유독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바로 멋쟁이들의 지리산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5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지리산 개강 여행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바로 이 힌남노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초부터 들리던 태풍 소식은 수요일..목요일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부산을 비롯한 남해에 상륙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대책을 연신 당부하고 있습니다.

멋쟁이도 긴급 교사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쉽사리 내려지지 않는 결정.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여행을 한 주 뒤로 미루고 일정과 코스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고 급하게 안내문을 만들어 각 가정에 알렸습니다.

후~~~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일을 겪어도 항상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신경이 잔뜩 곤두서곤 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결정이 나면 마음도 편하고, 새로운 힘도 생깁니다. 다시 시작인 거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지만, 진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면서도 어찌 그리 안절부절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는지요...

여행 변경 결정으로 잠시 흥분해졌던 마음이 태풍이 가져다줄 비와 바람 때문에 공동체 식구들에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다시 염려로 채워집니다.

아이고...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모두 아무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디모데후서 2장 21~21

인도 : 정다운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를 선교를 위한 기도 <파키스탄을 위해>  
3개월간 계속 내리고 있는 비로 나라 전체의 1/3이 잠기고 1천여명의 사망자와 3천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 더 이상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2) 어려운 때에 약한사람들(어린이, 노인 등)을 위하여  
3) 필요한 도움을 빨리 달아 위로가 되고 회복을 도울 수 있기를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용계리교회를 위해>  
1) 후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사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기를  
2) 박인옥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눈 건강)  
3) 박인옥 목사님의 은퇴후의 거처를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여행중에 있는 멋쟁이 4학년의 안전과 건강, 일정을 위해  
2) 지리산 여행을 앞두고 있는 멋쟁이학교와 부산 여행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학교를 위해  
3)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분,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코로나와 그 밖의 질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가을의 시작을 알리듯 하늘은 더욱 파랗고 바람은 선선하고 공기의 느낌도 다릅니다. 이제 곧 공동체 마당의 나무들이 알록달록 여러 색깔 옷을 입을 것입니다. 봄과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때입니다.

이번 주간엔 멋쟁이학교가 개학을 해서 공동체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본격적인 하반기의 시작이 실감 나는 한 주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태풍 [힌남노] 때문에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학교는 태풍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여행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은 태풍에 대비해 여러 시설들을 정비했습니다.

큰 피해 없이 이번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